

국제통상정보학의 학문적 체계

Formulating a Systematic Studies of International Commerce Information Systems

이 호 건*
Hogun Lee

요 약 (ABSTRACT)

우리 나라의 제반 여건에 비추어 볼 때 국제통상에서 정보가 차지하는 비중은 날로 높아가고 있는 반면, 국제통상정보학은 이제 연구 초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연구 및 종합적인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① 국제통상활동을 위한 환경정보의 분석과 활용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통상환경정보, ② 전자상거래와 무역업무자동화를 포함한 국제통상정보의 운영, ③ 제도적 법률적 측면을 연구하는 국제통상정보의 관리의 세 분야로 대별하고 주요 연구 대상으로 해외 지역정보, 자동화 시스템, 전자상거래 및 관련 법규를 선정하여 국제통상정보학의 체계적인 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Key Word : 국제통상정보학, 연구대상

< 목 차 >

- | | |
|--|--|
| <p>I. 서 론</p> <p>II. 국제통상정보학의 개황</p> <p style="padding-left: 20px;">1. 국제통상정보학의 개념</p> <p style="padding-left: 20px;">2. 연구현황</p> <p style="padding-left: 20px;">3. 관련 학문 분야와의 차별성</p> | <p>III. 국제통상정보학의 연구 대상</p> <p style="padding-left: 20px;">1. 연구의 범위</p> <p style="padding-left: 20px;">2. 교과목의 개발</p> <p>IV. 결 론</p> |
|--|--|

I. 서 론

학문을 어떠한 관점에서 정의하고 바라보는가에 따라, 특정 학문에 대한 평가가 상이할 것이다. 여러 가지 평가들 중에서 가장 확실 것 중의 하나는, 철학과 같이 인간 본연의 자 세 내지는 삶의 본질을 다루는 학문을 제외한,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 계통의 학문들은 사회적 필요에 의해 발생하여 사회적 요구가 많은 분야는 인기 있는 학문으로서 대접을 받

* 청주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교수

아왔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무역학은 우리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학문 분야의 하나임에 틀림없으며, 특히 IMF를 맞이한 현재와 같은 경제여건에서는 그 중요성이 배가되고 있다.

무역학의 역사는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며 현재에 이르기까지 질적 양적으로 많은 발전을 해왔다. 특히 우리 나라의 경제적 입지를 감안할 때에 지난 40여년 동안 무역학의 중요성이 강조되지 않은 시기는 한 번도 없었다고 단언할 수 있다. 다른 학문들과 마찬가지로 무역학도 때로는 점진적인 그리고 때로는 급진적인 발전을 반복해 왔다. 특히 1990년대에 들어서서는 과학의 발달과 사회적 요구에 따라 무역학의 급진적인 발전을 요구하는 때를 접하게 되었다.

특히 근년에 들어서는 무역과 국제통상이라는 용어의 개념 및 사용에 있어 혼란이 빚어지기도 하고 있으나, 이는 무역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무역을 물품의 수출입으로 한정짓는 협의의 무역의 개념을 확대할 필요에 의하여 국제통상이라는 용어가 무역보다 넓은 개념을 포괄하는 것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21세기를 맞이하여 기존의 무역학을 보다 발전시킨다는 의미에서 국제통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한다.¹⁾ 이러한 현상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무역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으며 이에 부응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서 정보학을 무역학 및 국제통상학에 접목하는 것을 제시할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정보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미래 사회에서는 그 중요성이 더욱 배가될 것 또한 자명한 사실이다. 정보는 과거에도 존재하고 있었고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존재할 것이다. 차이가 있다면 과거에는 정보의 수집이 어려웠으며, 수집된 정보의 수작업에 의한 가공이 가장 중요하였던 반면 미래는 수많은 정보의 수집은 쉬운 반면 수집된 정보를 어떻게 가공하여 활용할 것인가가 더욱 중요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정보시스템은 목적으로서가 아니라 업무의 효율성을 배가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그 지위가 더욱 확고해질 것이다.

지금까지도 그리해 왔듯이 우리 나라 경제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 중의 하나는 국제통상의 발전을 통해 국가 경제를 정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국제통상과 관련된 제반 분야에 정보 시스템을 도입하여 국제통상의 효율성을 배가시켜 세계시장에서 우리 나라 국제통상의 지위를 확고히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학문적인 면에서 국제통상학에 정보학을 도입한 국제통상정보학을 독립된 학문분야로 발전시키고, 실용적이며 미래 지향적인 국제통상정보학의 체계적인 연구와 연구 결과의 사회 환원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1) 무역을 물품의 수출입으로 한정짓고 국제통상이라는 용어가 무역을 포괄하는 넓은 개념의 용어로 사용되는 경우를 종종 접할 수 있다. 이러한 용어상의 변화는 정부의 정책 및 매스 미디어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 무역과 국제통상이라는 용어에 대한 논란은 차치하고 본 연구에서는 광의의 무역에 대한 개념과 국제통상의 개념을 동일시하고 있다.

II. 국제통상정보학의 개황

1. 국제통상정보학의 태동

정보 시스템이란 업무 효율의 극대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서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분야가 독립된 학문 분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정보학이란 통상적으로 하드웨어적인 시스템 공학을 중심으로 한 하드웨어적인 접근과 정보의 운영 및 관리를 중심으로 한 소프트웨어적 접근이 가능하다.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소프트웨어적 접근방식을 주로 하고 있으며 암호화 기술과 같은 기술적 접근은 공학적인 연구에 일임하고 있다. 사회과학에서는 정보와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더 많은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국제통상 분야에서도 이와 같이 국제통상정보와 정보시스템을 중심으로 연구해 나가고 있다.

국제통상정보학의 시작에 대한 명확한 시기를 제시할 수는 없으나, 무역업무자동화의 시행을 계기로 학문적 연구가 시작된 것으로 볼 수는 있을 것이다. 하여간 국제통상정보학과 관련하여 사용되어온 용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초기에는 단순히 수작업에 의해 이루어지던 업무를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처리 및 자료의 송수신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업무의 컴퓨터에 의한 처리를 중심으로 하는 무역거래 전산화, 자동화된 업무 처리절차를 중심으로 하는 무역업무자동화, 물류자동화, 통관자동화 등의 용어가 사용되었으며, 근래에는 일부에서 전자무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며, 최근에는 전자상거래가 이러한 모든 분야를 포괄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기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용어들은 외관상 나타나는 제반 현상을 중심으로 개념화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총괄할 수 있는 학문 분야의 정립이 필요하다 하겠다. 국제통상정보학은 국제통상활동에서 대두되는 정보와 정보시스템을 총괄하는 용어로서 무역업무 관련자동화 및 전자상거래 등을 포괄할 수 있는 학문분야가 될 것이다.

2. 연구현황

정보화라는 용어가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내리기 시작한 것 최근의 일이며, 학문적으로도 무역학계 및 국제통상학계에서 연구되기 시작한 것은 채 10년이 되지 않고 있다. 특히 무역업무자동화의 상용화가 시작된 1993년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불과 5년여의 학문적 역사 밖에 가지고 있지 못하다. 아직 국제통상이라는 용어의 정의 내지는 개념에 대한 논란이 있는 현 시점에서 국제통상정보학의 연구 현황을 논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볼 수 있으나, 국제통상을 기존 무역의 개념을 발전적인 측면에서 받아들인다면 무역과 관련된 정보시스템의 연구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우리 나라 최초의 국제통상정보학 관련 연구는 작고하신 김안식 교수님의 1985년 '韓國型 貿易情報시스템의 開發에 관한 研究', '국제무역관습의 변천과정과 Documentless Trade에 관한 연구' 및 1986년도에 발표된 박사학위청구논문인 '國際貿易制度手續의近代化 及び電算化に關する研究'를 시초로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우리와는 정보화의 수준이나 방법이

상이한 일본의 NACSS와 SHIPNET을 기본을 하였다는 측면에서 일부 비판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와는 정보화의 여건이나 방법이 다른 일본의 모델로부터 도출하여 우리 나라 무역자동화를 위해 제시된 본 논문의 모델이 현재 실제로 개발된 모델과 같다는 측면에서 그 논문은 높이 평가되어야만 할 것이다.²⁾

이후 무역업무자동화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 환경 조성단계라고 할 수 있는 무역서류 표준화 및 무역 절차 간소화에 관한 논문이 일부 발표되다가, 1992년 무역업무자동화의 추진이 알려지면서 비로소 관련 논문들이 발표되기 시작하였다. 이후의 논문을 명확하게 연대별로 구분하기는 어려우나 대략 전반적인 추이를 다음과 같이 개략적인 구분이 가능할 것이다.

무역업무자동화의 상용 서비스가 시작된 1993년에는 무역업무자동화 시스템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논문이 주종을 이루었으며, 기능별 정보시스템으로서 금융망, 물류망, 보험망, 세관망 등에 관한 논문이 발표되었다. 본 논문들은 대략 시스템의 구성, EDI의 소개 및 전자문서의 구성 그리고 업무의 시행 방법에 관하여 현황 및 발전방향의 제시가 이루어졌다. 또한 이와 거의 동시에 상역망, 금융망, 물류망, 보험망 통관망과 연계하여 EDI 도입 효과 및 EDI를 이용한 업무 효율성 증대방안에 관한 논문이 주종을 이루었다. 이후 CALS가 소개되면서 CALS는 EDI와 함께 논문의 주제로 선택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 논문들은 EDI - 최근에는 CALS와 함께 또는 CALS로 대체하여 설명하기도 하지만 -의 활용에 의한 효율성의 극대화 및 업무처리방법을 집중적으로 강조하여 왔으나, 실무에서는 컴퓨터 시스템 및 EDI의 도입에 따른 비용을 상회할 수 있는 업무의 효율성을 달성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며 이에 따라 연구 결과에 대한 회의적인 비판도 다수 있었다. 그러나 국제통상정보에서 EDI가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서 활용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투자비용을 월등히 상회하는 효율성을 제공할 것이다.

인터넷과 World Wide Web이 소개되면서 세계적으로는 1993년부터 인터넷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하였으나, 우리 나라는 1995년 이후에 인터넷 통신이 활성화되면서 1996년부터 전자상거래에 관한 논문이 발표되었다. 1997년에는 전자상거래의 소개 및 운영방안이 활발하게 발표되었으며, 전자상거래의 개념, 전자상거래를 위한 solution, 전자서명, 보안장치 등에 관한 주제가 논문 형식보다는 보고서 형식의 단편적인 주제 발표가 다수 이루어졌다. 또한 1996년에는 한국정보법학회가 설립되면서 정보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법학 연구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국내법과 UN 모델법이 발표되면서 국제통상정보 분야에 관한 법률적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다.

현재는 상기한 주제에 관하여 폭넓게 연구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구 주제가 EDI, EDI를 이용한 업무자동화, 인터넷 전자상거래, 이와 관련된 법률 문제 등 전반적인 주제에

2) 본 논문에서는 무역자동화를 무역거래 전산화를 통한 paperless trade 또는 documentless trade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KOTIS를 무역자동화를 위한 VAN 사업자로 발전시킬 것을 제시하고 있어 현재 사용되고 있는 용어나 모델과 상이하게 보이지만 실제 개념은 현재의 모델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대한 연구로 확산되고 있다. 현재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제통상활동의 급증 및 그 역할의 확대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3. 관련 학문 분야와의 차별성

국제통상정보학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학문 분야로서 경영정보학을 들 수 있으며, 학회로는 경영정보학회, CALS/EC학회, 정보법학회 등이 있다.

경영정보학은 정보의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국제통상정보학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거래처리시스템(TPS), 경영정보시스템(MIS), 의사결정 지원시스템(DSS), 전자적 자원관리시스템(ERP) 등으로 발전하고 있으나, 이는 기업의 경영활동 및 조직기능별 정보시스템의 연구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한편 무역과 같이 기업과 기업간의 관계는 물론, 세관 등 정부기관, 금융기관, 선사, 보험사 등 관련기업, 무역협회, 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 등과의 긴밀한 연계성을 중심으로 네트워크간의 연결, 국내 및 국제적인 전자문서의 인증,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정보 관련 제도 및 법률적 연구 등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통상학과는 차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CALS/EC 및 전자상거래도 국제통상정보학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나, 현재 CALS/EC 협회가 주관하고 있는 CALS/EC학회는 정보의 운영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과학 분야와는 달리 운영을 위한 기술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통상정보학과는 완전히 구별되고 있다. 또한 전자상거래는 정보의 운영이라는 면에서 핵심적인 운영방법이 될 것이나, 전자상거래는 정보의 운영 형태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고, Global EC라는 측면에서 볼 때 국제통상정보학을 상위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보시스템은 하나의 수단이며 목적이 되지 않는다는 점과 정보시스템은 실제 업무에 적용할 때에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정보시스템을 특정 업무 즉 국제통상에 적용할 경우, 실질적으로 해당 정보시스템을 심도있게 연구하고 논리적이며 합리적인 운영방안 및 발전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자는 정보시스템을 연구하는 전문가보다는 해당 적용 분야에서 연구 및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라는 점이다. 따라서 국제통상정보학은 국제통상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와 전문 연구인력에 의하여 발전되어야 한다.

III. 국제통상정보학의 연구대상

1. 연구의 범위

현대의 국제통상 활동은 인터넷과 각종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가상 공간에서의 활동과 제조, 생산, 물류, 전통적 결제 방식 등 물리적 공간에서의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가상 공간과 물리적 공간 즉, virtual world와 physical world가 공존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국제통상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면서, 관련 정

보의 검색 및 가공, 인터넷을 통한 Web Site의 활용, 기업대 개인간 거래의 급증, 새로운 유통업자의 등장, 새로운 법질서의 수용 등 지금껏 존재하지 않았던 그리고 현재의 체제로는 수용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국제통상정보학을 구성하는 요소는 첫째 국제통상 환경정보, 둘째 업무처리 시스템 및 네트워크, 셋째 국제통상정보의 운영 그리고 넷째 정보의 관리 및 통제로 대별할 수 있다.

국제통상 환경정보는 우선 세계 시장별 및 제품별 정보의 가공을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국제통상과 관련된 정보의 검색, 수집, 분류, 저장 및 제공이 선행되고 이를 세계 시장 진출 전략의 수립 및 협상의 대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둘째 업무처리 시스템 및 네트워크는 공학적이 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국제통상정보학에서는 그 활용 방안에 주안점을 두고, 네트워크의 구성 및 정보의 운영과 결합하여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정보의 운영은 인터넷 전자상거래와 EDI에 의한 전자상거래가 핵심적인 연구의 대상이 될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거래 알선, 조회, 상역, 외환, 물류, 보험, 통관 부문 등이 연구의 대상이라 할 수 있다.

넷째, 정보의 관리 및 통제 분야는 시스템 보안, 사용자 인증, 정보의 보호, 정보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법규 등으로 구성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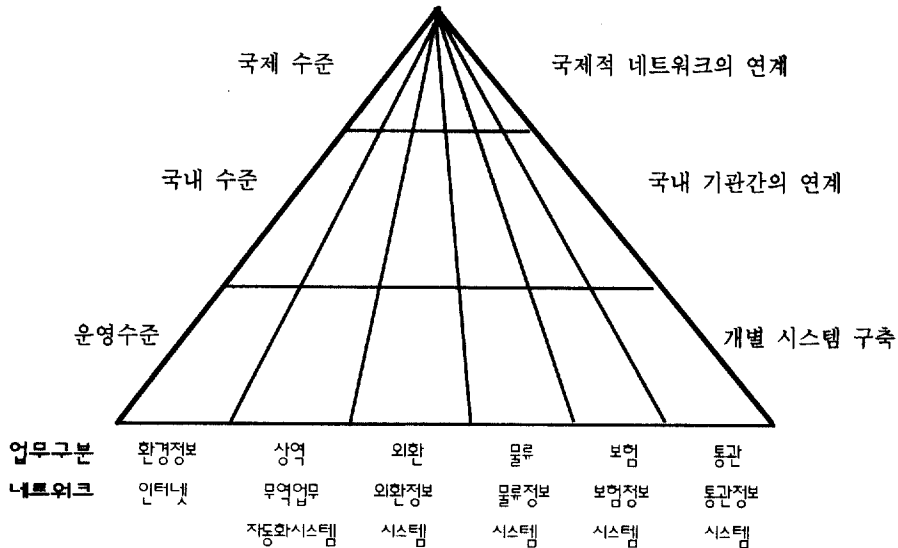
국제통상정보학을 구성하는 요소는 다음과 같은 시스템에 의하여 구현되고 있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 ① 정보가공 시스템 - 인터넷, 통신 네트워크 및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한 정보의 검색, 수집, 분류, 저장, 제공
- ② 정보처리 시스템 - 문서 작성 및 송수신, DB에 의한 자료 저장
- ③ 정보운영 시스템 - 하드웨어적 시스템과 소프트웨어적 시스템 기업, 유관기관, 업계 간의 연계, 네트워크간 연결, 인터넷, EDI 네트워크 전자상거래, 무역업무자동화, 물류자동화, 통관자동화, 보험업무자동화, 외환 업무자동화 등
- ④ 정보관리 시스템 - 방화벽, 사용자 승인, 문서 인증, 사후 관리, 관련 국내·외 법규

위와 같이 국제통상을 구현하는 시스템을 중심으로 연구의 대상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정보가공시스템과 관련하여 해외 시장 정보의 수집 및 분석, 데이터 베이스에 의한 협상 방법의 개발 등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보처리 시스템에서는 EDI와 CALS를 이용한 문서의 작성 및 유통에 관하여, 정보운영 시스템에서는 전자상거래, 무역 업무 자동화, 외환업무자동화, 물류자동화, 보험업무자동화, 통관자동화는 물론 인터넷을 이용한 Web Site 및 Cyber Shopping Mall의 운영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정보관리 시스템에서는 공학적 기술적으로 개발된 각종의 보안 장치의 활용, 전자서명, 전자문서의 인증, 전자상거래로 인한 법률 문제 등이 연구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국제통상정보 관련 시스템의 정보화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평적 및 수직적 구분을 할 수 있다.

<그림 - 1> 정보화 수준에 따른 구분



정보화 수준은 업무 분야별로 시스템의 통합정도에 따라 정보화 단계 및 업무시스템별 구분이 가능하며, 업무 분야별로 정보화 수준이 달라지게 된다. 단 위의 그림은 개별적인 기업들이 자체적인 컴퓨터 시스템 및 네트워크 연결 시스템을 갖춘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정보화 단계를 대별하여 보면 ① 해당 업무 분야별로 정보화 시스템을 갖추어 해당 분야의 내부적인 정보화시스템을 갖춘 운영 수준을 기반으로, ② 국내 동일 산업내에서는 하나로 통합된 시스템을 운영하는 국내 수준과 ③ 국제적으로 통합되어 운영될 수 있는 국제 수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업무 시스템별 분류는 해당 업무와 관련 정보시스템에 의거하여 분류된 것으로서 환경정보, 상역, 외환, 물류, 보험 및 통관 등으로 대별할 수 있다. 각각의 업무들은 자기 자신의 업무에 적합한 형태의 정보시스템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해당 시스템은 구축 시기에 따라 상이한 통신 표준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통신표준은 산업별 국가별로 상이함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정보화 수준은 업무 분야별로 정보화 단계를 구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환경정보의 수집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인터넷은 이미 국제적인 정보화 단계에 도달해 있으며, 외환 분야도 국내 금융기관의 전산화는 물론 국내 금융망 및 SWIFT를 통해 모든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국제 수준의 정보화가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상역망과 같이 국내 업무의

자동화를 중심으로 하는 국내 수준 정보화에 역점을 두는 분야도 있다.

국제통상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각의 업무 분야별로 국제적인 수준의 정보화가 필수적이며 동시에 상호간의 호환성을 제고하여 총체적인 정보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2. 교과목의 개발

모든 대학들이 국제통상정보학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타 학과목들과 어떠한 학문적 체계에 의하여 조화를 이루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정립된 체계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아래에 제시된 교과목들은 개발 가능한 교과목으로 제안한 것으로서, 다른 명칭 및 내용으로 구성되어 더욱 발전적인 교과목의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이에 각 대학마다 개설되는 교과목 및 개발 중인 교재에 대한 상호간의 토론을 거쳐 각 대학들이 공유할 수 있는 표준화된 교과목을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 국제통상정보학과 관련된 내용은 무역학과 및 대부분의 경제통상학부 그리고 본 학과 및 전공과 관련된 학과의 관련 교과목에서 소개되고 있다. 무역학개론 또는 국제통상학개론 등의 기초 교과목에서는 물론, 국제상무론, 국제운송론, 국제유통론, 무역결제론, 무역보험론 등에 중요한 내용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위에서 제시된 연구 대상 및 국제통상정보 시스템의 분석 기준에 의하여 국제통상정보학을 체계적으로 다루는 교과목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제통상정보론 : 국제통상정보학의 입문을 위한 기본 교과목으로서 정보의 개념 및 정보의 활용 방법, 기초적인 국제통상정보 네트워크의 구성, 무역업무 자동화 및 전자상거래의 시행 과정, 관련 법규 등 국제통상정보학의 기초를 이루는 내용을 다룬다.

국제통상 환경론 : 국제통상정보학은 Cyber 공간을 주무대로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에 참여하는 고객, 실무자 및 전문가들은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해당 국가 또는 시장의 특성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실제 인물이며 국제통상정보학은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제 국제통상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만큼, 국제 통상 환경의 분석이 국제통상정보학의 실용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에 필수적인 교과목이 될 것이다.

해외시장의 상관습 : 실제 국제통상활동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세계 각국 시장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해당 시장의 특성을 숙지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해외 시장별 상관습을 분석하고 인터넷을 통해 해외 시장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교과목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본 교과목은 위의 국제통상 환경론과 더불어 국제통상 분야에서 필요한 지역연구 분야가 될 것이다.

국제통상협상론 : 국제통상 환경론과 해외 시장의 상관습을 바탕으로 협상의 기법, 유의사항 등을 다루며, 기존의 무역영어 또는 무역통신문의 교과목도 본 교과목과 보조를 함께하여 효율적 의사 소통론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무역업무자동화론 : EDI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상역, 외환, 물류, 보험, 통관 정보 시스템의 운영형태와 방법 등을 제시하고 전체적인 업무 프로세서를 설명하는 교과목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무역업무자동화실습 : 이론적인 무역업무 자동화론을 실습 교과목으로 발전시킨 것으로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실제 문서의 작성 및 문서의 송수신을 실습하는 교과목이다. 본 교과목은 2년제 대학은 물론 4년제 대학에서도 무역학 또는 국제통상학을 실용적 학문 분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수 교과목인 것으로 생각된다.

국제전자상거래론 : 인터넷과 각종의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전자상거래는 국내 시장과 국제 시장을 구분하지 않고 국제적인 거래로 발전하여 그 개념이 Global Electronic Commerce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전자상거래의 개념과 실행 과정에 대한 이론적 강의를 바탕으로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이용한 정보의 검색 등 실습을 병행하도록 한다.

위 교과목들에는 정보의 보안, 시스템 보안 및 정보 시스템의 운영에 따른 법률적인 내용들이 적재 적소에서 설명되어야 할 것이며, 필요에 따라서는 독립적인 교과목의 개발 내지는 기존 법규 관련 교과목에 정보법의 추가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제통상정보학의 학문적 체계를 정립하고 이에 의거한 교과목의 개발을 위하여 이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교수와 실무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이 활발한 정보 교류를 하여야만 한다.

V. 결 론

우리 나라 경제에서 국제통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대함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하는 사실이지만, 이제는 IMF를 맞이하여 국제통상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국제통상의 미래는 정보화의 수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제 우리는 국제통상정보에 대한 연구와 연구결과의 사회 환원이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중요한 시기에 서있다.

초기 국제통상정보에 대한 연구는 수작업에 의해 이루어지던 업무처리를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처리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있었으며, 종합적인 업무 프로세서의 자동화가 미비한 관계로 정보시스템이 기대한 만큼의 효율성을 제공하지는 못했다. 이제 각 업무 분야별 정보시스템의 정보화 수준이 상당히 향상되었으며 종합적인 운영 프로세스의 자동화가 가능해 질 수 있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이에 경상계통에서 연구되어야 할 국제통상정보학은 공학적인 연구는 차치하고 ① 국제통상활동을 위한 환경정보의 분석과 활용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통상환경정보, ② 전자상거래와 무역업무자동화를 포함한 국제통상정보의 운영, ③ 제도적 법률적 측면을 연구하는 국제통상정보의 관리의 세 분야로 대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제통상활동과 관련된 업무별 정보시스템의 개별적인 연구와 종합적인 운영을 위한 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

이며,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우리 나라 국제통상의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solution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국제통상정보학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연구하고 실무에서 종사하는 교수와 전문가들은 정보를 공유하고 활발하게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학문적 체계의 정립은 물론 연구결과와 사회 환원을 통하여 국가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소위 정보화와 세계화로 특징지을 수 있는 1990년대를 거쳐 21세기로 접어드는 현 시점은 국제통상의 정보화를 시작하기에 이미 늦은 시점인 동시에 가장 빠른 시점이라 할 것이다.